

제 1 교시

국어 영역

성명

수험 번호

[1~3] 다음은 동아리 신입생 선발을 위한 면접의 일부이다. 물
음에 답하시오.

은표: 또래 상담 동아리 '우리 사이'에 지원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저는 동아리 회장을 맡고 있는 2학년 김은표라고 합
니다. 지원자가 많아 두 명이 한 조를 이루어 면접이 진행된
다는 것을 미리 알려 드렸지요?

우선 우리 동아리에 지원한 동기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슬기: 저는 중학교 때 또래 상담 동아리에서 활동했었는
 [A] 데요, 고등학교에서도 활동하려고 마음먹고 있던 차에 선
 배들로부터 우리 학교에도 또래 상담 동아리가 있다는 사
 실을 듣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민성: 저는 또래 상담 동아리에서 활동하던 친구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요, 저도 친구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이렇
 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은표: 그렇군요. 민성 님께 묻겠습니다. 또래 상담 동아리에
 서 활동하던 친구에게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
 해 주시겠어요?

민성: 네, 저는 고민이 있을 때 선생님이나 부모님보다는 친
 구들과 상담하는 편입니다. 친구들이 성적, 이성 관계 등 저와
 비슷한 고민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저도 또래 상담 동아리
 친구에게 받았던 것 같은 도움을 주는 상담자가 되고 싶어요.

은표: 이번에는 슬기 님께 묻겠습니다. 선배들로부터 '우리
 사이'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는데, 우리 동아리에 대
 해서 알고 있는 것에는 어떤 것이 더 있는지요?

슬기: (당황한 표정으로 들고 있던 수첩을 넘겨 보면서) 그
 게 ..., 저 ...

은표: (웃으며) 괜찮으니 당황하지 말고 말씀해 보세요.
 슬기: 어 ..., 그러니까 ...

민성: (슬기의 대답이 끝나기도 전에) 만들어진 지 10년이나
 된 역사 깊은 동아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상담한 내용을 모아
 분기별로 책자를 내고 있다는 것도 들었습니다.

은표: 네, 시간이 없으니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아리의
 구성원이 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활동하고 싶는지 말씀해 주세요.

슬기: 친구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지는 못하겠지만 동등한
 입장에서 고민을 들어 주는 따뜻한 상담자로 활동하고 싶습니
 다. 상담한 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는 것은 기본이겠지요.

은표: 민성 님은 어떤 활동을 하고 싶으세요?
 민성: 동아리에서 주기적으로 개최하는 공부 모임에 열심
 [B] 히 참여해서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쑥스러워서
 또래 상담을 요청하지 못하는 친구들에게도 적극적으로 다
 가가고 싶습니다.

은표: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면접 결과에 대해서는 이번
주 중으로 따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다음은 위 면접을 준비하면서 나타난 '은표'의 사고 과정 중 일
부이다. 면접 내용에 비추어 보았을 때 반영되지 않은 것은?1)

우선, 지원자들에게 면접의 방법, 장소, 시기 등을 알려야겠
다. ㉠이번에는 단독 면접이 아니라 집단 면접이라는 것을 미
리 알려야 지원자들이 당황하지 않고 면접을 준비할 수 있을
거야. 신입생들에게 어떤 질문을 해야 할까? ㉡새로운 동아리
원을 선발하는 면접이니까 면접의 목적에 맞게 지원 동기, 동
아리 활동 계획 등을 질문하는 것이 좋겠지.

대답이 너무 추상적이거나 짧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러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질문을 던져 구체적인 대답을 유도해
야겠다.

그러다 보면 지원자가 당황할 수도 있겠네. ㉣지원자가 면
접 중에 당황하게 되면 대답을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도
중요하겠지. ㉤지원자가 대답을 잘하지 못할 경우 정확한 답
변을 할 때까지 여러 번의 기회를 제공해야겠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2.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2)

- ① [A]에서 은표는 슬기에게 여러 가지 종류의 질문을 동시에
하고 있다.
- ② [A]에서 슬기는 은표의 구체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회피
하고 있다.
- ③ [A]에서 은표는 슬기에게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한 답변
을 요구하고 있다.
- ④ [B]에서 은표는 다양한 내용과 형식으로 답변이 가능한 질
문을 민성에게 던지고 있다.
- ⑤ [B]에서 민성은 은표의 질문이 사실을 묻는 것인지, 의견을
묻는 것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3. 다음은 '우리 사이' 선배들이 위 면접을 보고 평가한 면접 평가지이다. 면접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태도나 진술이 적절했는가?
 슬기 → 면접 중에는 자신의 생각을 조리 있고 차분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한데 수첩을 넘겨 보며 당황하는 태도를 보였다. ①

질문에 대한 답변을 충실히 했는가?
 슬기 → '우리 사이'에 대해 어떠한 것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것인데도, 이에 대한 답변을 충실히 하지 못했다. ②

질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답했는가?
 민성 → 또래 상담 동아리의 친구에게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면접자의 질문 의도에서 벗어난 답변을 했다. ③

다른 지원자의 답변을 잘 듣고, 존중하는 태도를 지녔는가?
 민성 → 다른 지원자가 대답을 마치지 못했는데도 이를 답변하여 다른 지원자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④

정해진 시간 내에 적절한 길이로 핵심만을 답변했는가?
 슬기 →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유사한 말을 반복하며 장황한 답변을 하여 다른 지원자가 답변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 ⑤

[4~5] 다음은 친구 간의 대화이다. 읽고 물음에 답시오.

윤서: 지우야, 왜 자습 시간인데 공부는 안 하고 멍하게 있니?
 지우: 음 ... (답답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별일 아니야. 그냥 집중이 잘 안 돼서.
 윤서: ㉠네 표정을 보니 무슨 일이 있는데 뭘.
 지우: 아무것도 아니야. 신경 써 줘서 고마워.
 윤서: 뭘테? 우리 사이에 못 할 말이 뭐가 있니?
 지우: ㉡너니까 하는 말인데, 자습에 집중할 수가 없어. 학급 회의 시간에 우리 반 아이들이 함께 성적을 향상시키자는

목표를 세우고 점심시간에 자습을 하기로 했잖아.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는 아이들이 많이 떠드는 것 같아.

윤서: ㉢하긴, 우리 반 아이들이 자습 시간에 떠들긴 하지. 네가 반 아이들에게 자습 시간에 조용히 하자고 말하면 어땠겠니?

지우: 그런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 자칫 내가 잘난 척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윤서: ㉣그래,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구나. 나도 네 입장 충분히 이해한다. 그래도 필요하다면 할 말은 해야 되지 않겠니? 정 직접 말하기 어렵다면 온라인상의 학급 게시판에 올려 봐.

지우: 그래, 그게 좋겠다. ㉤직접 얼굴 보고 얘기하면 걸끄러운 것도 학급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이용하면 쉽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학급 게시판에 어떻게 표현하지?

윤서: 사람들을 설득하는 말하기를 하려면 말하는 사람이 청중과 공유하는 점을 밝혀라. 그러면 청중의 공감을 이끌어 내기가 한결 쉽데. 그러니까 자습 시간에 떠드는 아이들에게 (㉞)

4. ㉠ ~ ㉞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상대방의 비언어적 표현을 통해 상대방이 처한 상황을 짐작하고 있다.
- ② ㉡: 대화 참여자 간의 친밀한 관계가 의사소통에 영향을 주고 있다.
- ③ ㉢: 상대방의 말에 대한 자신의 평가가 옳은지 확인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 ④ ㉣: 상대방의 입장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감을 표현하고 있다.
- ⑤ ㉤: 매체의 적절한 활용이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5. 대화를 고려할 때, (㉞)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내가 자습 시간에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보여 줘 봐.
- ② 자습 시간에 집중하는 정도와 성적이 향상되는 정도가 비례한다는 점을 강조해 봐.
- ③ 너 말고도 시끄러워서 자습 시간에 집중하지 못한 친구들이 많다는 것을 드러내 봐.
- ④ 자습 시간에 반 아이들이 떠들어서 내가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을 감정에 호소해 봐.
- ⑤ 우리가 시간을 아껴 가며 이렇게 점심시간에 자습을 하는 것은 성적 향상이라는 공동의 목표가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제시해 봐.

[6~7]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주제: 석탄 화력 발전과 관련한 문제점과 해결 방안

I. 서론: 에너지 생산의 방향 ㉠

1. 석탄 화력 발전의 전력 생산 비중

2. 석탄 화력 발전 시설의 수와 설치된 지역

II. 본론

1. 석탄 화력 발전과 관련한 문제점

가. 대기 오염을 유발함. ㉡

나. 이산화탄소를 과도하게 발생시켜 공기가 오염됨.

다. 관련 시설에 대해 주민들이 부정적으로 인식함.

2. 석탄 화력 발전과 관련한 문제점 해결 방안 ㉢

가. CCS* 설비 설치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처리함.

나. 에너지 생산의 비용이 적게 들. ㉣

III. 결론: 에너지 생산의 한계 극복 ㉤

* CCS(Carbon Capture and Storage):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저장하는 기술. 발전소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모은 후 땅속 또는 해저에 저장하거나 유용한 물질로 전환하는 기술을 말한다.

6. 위 개요를 수정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²⁾

- ① ㉠은 하위 항목을 포괄하지 못하므로 '석탄 화력 발전의 전력 생산 실태'로 바꾼다.
- ② ㉡은 'II-1-나'와 유사한 내용이므로 통합하여 '이산화탄소를 발생시켜 대기 오염을 유발함.'으로 고친다.
- ③ ㉢에는 'II-1-다'와 연계하여 '시설과 관련된 지역의 주민을 설득하고 보상책을 마련함.'을 추가한다.
- ④ ㉣은 상위 항목과 어울리지 않으므로 'II-1'로 옮긴다.
- ⑤ ㉤은 개요의 흐름에 부합하도록, '석탄 화력 발전과 관련한 문제점 해결을 촉구함.'으로 고친다.

7. (보기)는 개요를 작성한 후, 수집한 자료의 일부이다. 자료의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⁷⁾

(가) 통계 자료

1. 우리나라 전력 생산 비중

자료: 한국전력(2012년 기준)

2. 발전원별 이산화탄소 배출량

자료: IAEA

(나) 신문 기사

원전(原電) 안전성에 대한 우려 등으로 최근 석탄 화력 발전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석탄 화력 발전소는 발전 용량이 50~100만 kW 수준으로 크고, 다른 발전 시설에 비해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든다.

-○○ 신문

(다) 전문가 인터뷰

IEA(국제 에너지 기구)는 CCS 설비가 2020년엔 100개, 2030년엔 850개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일본은 2015년, 미국은 2017년 상용화를 목표로 관련 연구 센터를 설립해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김○○ 교수

- ① '(가)-1'을 활용하여, 'I. 서론'에서 석탄 화력 발전소의 전력 생산 비중이 높음을 제시할 수 있다.
- ② '(가)-2'를 활용하여, 'II. 본론'에서 석탄 화력 발전소를 활용하려면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처리할 필요성이 있음을 주장한다.
- ③ '(가)-1'과 (나)를 활용하여, 'II. 본론'에서 주민들이 관련 시설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이유가 이산화탄소와 관련된 것임을 제시한다.
- ④ '(가)-2'와 (다)를 활용하여, 'II. 본론'에서 CCS가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한다.
- ⑤ (다)를 활용하여, 'III. 결론'에서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CCS 관련 연구에 매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촉구한다.

8. <조건>에 따라 <건의문>을 작성했다. ㉠~㉤ 중, 반영되지 않은 것은?⁸⁾

< 조건 >

- ㉠ 건의문을 작성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밝히고 정중한 태도를 유지한다.
- ㉡ 건의할 내용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힌다.
- ㉢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다.
- ㉣ 문제와 관련된 통계 자료를 통해 주장을 뒷받침한다.
- ㉤ 문제가 해결되면 얻게 될 효과를 언급한다.

<건의문>

안녕하세요?

저는 교지 편집부의 회장 김은미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동아리 방의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메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밴드부와 교지 편집부의 동아리 방은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 동아리 모두 방과 후에 모임을 갖다 보니 밴드부가 연습할 시간에 교지 편집부도 편집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아리 방에 방음 장치가 되어 있지 않아 밴드부가 연습하는 소리가 교지 편집부에게까지 들려 회의를 계속하기가 어렵습니다. 열심히 연습하는 밴드부에 연습을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어서 난감한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모이는 날을 조정하면 어떨지 밴드부 회장님께 건의드립니다. 교지 편집부는 화·목요일, 밴드부는 월·수·금요일에 모임을 한다면 밴드부에서도 마음놓고 큰 소리로 음악을 연주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 동아리도 회의를 원활히 개최할 수 있을 것입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9~1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작문 과제]

‘역경’에 대한 글을 써 보자.

[작문의 초고]

어린 시절 누구나 한번쯤은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고 있는 안테르센의 동화를 ㉠읽어 보았다. 안테르센의 동화가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이유는 낭만적이고 극적이면서 이따금 배를 잡고 웃게 만드는 유머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안테르센의 동화를 읽은 사람들은 대부분 안테르센의 삶이 동화

만큼이나 아름답고 평화로웠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실제로 안테르센만큼 ㉢굴절진 삶을 산 사람도 없다. 그는 지독하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데다가 아버지는 집안 대대로 유전되는 정신병으로 죽고, 어머니 역시 거리에서 구걸을 하다가 정신 병원에서 사망했다. 그리고 안테르센 자신은 못생겼다는 이유로 여자들의 관심을 받지 못했다.

그런 안테르센에게 어느 날 기자가 어떻게 ‘성냥팔이 소녀’와 ‘미운 오리 새끼’와 같은 주옥같은 동화를 쓸 수 있었냐고 물었다. ㉣안테르센이 창작한 동화는 무려 163편에 이른다. 그러나 안테르센은 웃으면서 자신이 가난했기에 ‘성냥팔이 소녀’를 쓸 수 있었고, 어려서 못생겼다고 놀림을 받았기에 ‘미운 오리 새끼’를 쓸 수 있었다고 대답했다.

역사를 돌이켜 보면 다윈, 실러, 헨델, 모차르트, 슈베르트 등 수많은 사람이 안테르센처럼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자신의 분야에서 커다란 업적을 남겼다. 어려운 환경이 오히려 이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했던 것이다. 그리고 보면 역경이란 받아들이기에 따라서는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닌 것 같다. 나도 내가 처한 역경을 한탄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성공의 원동력으로 삼아야겠다.

9. ‘작문의 초고’에서 글쓴이가 활용한 글쓰기 방법만을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⁹⁾

< 보기 >

- ㄱ. 친숙한 대상을 제시하면서 글을 시작한다.
- ㄴ. 역경을 극복한 사람들을 제시하여 글에 신뢰감을 준다.
- ㄷ. 정의의 방식을 사용하여 역경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제시한다.
- ㄹ. 역경에 대한 자신의 인식 변화를 제시한 후에 다짐으로 마무리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ㄹ

10. ㉠~㉤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¹⁰⁾

- ① ㉠: 문장 성분의 호응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읽었다’로 고친다.
- ② ㉡: 문단을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지 못하므로 ‘그러나’로 고친다.
- ③ ㉢: 단어의 사용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굴곡진’으로 고친다.
- ④ ㉣: 글의 흐름과 어긋나는 문장이므로 삭제한다.
- ⑤ ㉤: 어문 규정에 맞지 않으므로 ‘작용했던’으로 고친다.

11. <보기 1>을 참고하여 <보기 2>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¹¹⁾

— < 보 기 1 > —

국어는 높임 표현이 발달해 있는데, 높임 표현을 잘못 쓰는 경우도 많다. 상대방이 아닌 자기 자신을 높이거나, 사람을 높여야 하는데 사물을 높이기도 한다. 또한 관계에 적합하지 않게 잘못된 호칭어를 쓰거나 높이는 대상이 아예 드러나지 않게 말하는 경우도 있다.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와 종결 어미를 잘못 결합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발견된다.

— < 보 기 2 > —

잘못된 높임 표현의 예

ㄱ. 저는 고객을 위해 항상 노력 중이십니다.
 ㄴ. 주문한 음식 나오셨습니다.
 ㄷ. (옷걸이에 걸려 있는 옷을 가리키며) 요즘에는 이런 옷이 유행이세요.
 ㄹ. (식당에서 자신보다 어린 종업원에게) 이모! 여기 계산 좀 해 주세요.
 ㅁ. 손님, 여기에 앉으실게요.

- ① ㄱ은 상대방인 고객 대신에 자신을 높인 것이군.
- ② ㄴ은 사람을 높이지 않고 사물인 음식을 높인 경우이군.
- ③ ㄷ은 높이는 대상이 무엇인지 명확히 드러내지 않은 것이군.
- ④ ㄹ은 관계에 적합하지 않게 잘못된 호칭어를 쓴 경우이군.
- ⑤ ㅁ은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와 종결 어미를 잘못 결합한 것이군.

12. (보기)는 중의성을 갖는 문장이다. 수정 방안에 따라 문장을 고쳐 쓴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¹²⁾

— < 보 기 > —

a. 민수는 나보다 영희를 더 보고 싶어 한다.
 b. 나는 이모와 이모부를 만났다.
 c. 친구가 연필과 지우개 두 개를 주었다.
 d. 그는 어떤 사람이든지 좋아한다.
 e. 아름다운 그녀의 동생이 웃고 있다.

	수정 전	수정 방안	수정 후
①	a	'나'를 보고 싶어 하는 것보다 '영희'를 더 보고 싶어 한다는 것으로	민수는 나를 보고 싶어 하기보다 영희를 더 보고 싶어 한다.
②	b	'이모'와 '이모부'를 순차적으로 만난 것으로	나는 이모를 만난 뒤 이모부를 만났다.
③	c	'연필'과 '지우개'를 하나씩 준 것으로	친구가 연필 한 개와 지우개 한 개를 주었다.
④	d	'좋아하다'의 주체가 '어떤 사람'이 되도록	그는 어떤 사람이든 좋아한다.
⑤	e	그녀의 동생이 이름 답다는 뜻으로	그녀의 아름다운 동생이 웃고 있다.

13. <보기>를 참고하여 표준 발음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¹³⁾

— < 보 기 > —

제12항 받침 'ㅎ'의 발음은 다음과 같다.
 ...
 3. [붙임] 'ㄴㅎ' 뒤에 'ㄴ'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ㅎ'을 발음하지 않는다.
 제20항 'ㄴ'은 'ㄹ'의 앞이나 뒤에서 [ㄹ]로 발음한다.
 (붙임) 첫소리 'ㄴ'이 'ㄷㅎ', 'ㄹ' 뒤에 연결되는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 ① '안는'은 'ㄴㅎ' 뒤에 'ㄴ'이 결합되는 경우이므로 [안는]으로 발음해야겠군.
- ② '똥는'은 'ㄷㅎ' 뒤에 'ㄴ'이 결합되는 경우이므로 [똥는]으로 발음해야겠군.
- ③ '할네'는 'ㄴ'이 'ㄹ' 뒤에 연결되는 경우이므로 [할레]로 발음해야겠군.
- ④ '물날리'는 'ㄴ'이 각각 'ㄹ'의 뒤와 앞에 있으므로 [물날리]로 발음해야겠군.
- ⑤ '천리'는 'ㄹ'의 앞에 'ㄴ'이 있으므로 [첼리]로 발음해야겠군.

14. 다음의 ㉠~㉣에서 높임을 받고 있는 인물로 적절한 것은?¹⁴⁾
[3점]

- ㉠ 아버지, 동생이 학교에 가고 있대요.
- ㉡ 할머니께서 나에게 용돈을 주시었다.
- ㉢ 경호는 선생님께 수학 문제를 여쭙어 보았다.

	㉠	㉡	㉢
①	객체	듣는 이	주체
②	객체	주체	듣는 이
③	주체	듣는 이	객체, 듣는 이
④	듣는 이	주체	객체
⑤	듣는 이	객체	객체, 듣는 이

15.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사례로 적절한 것은?¹⁵⁾

< 보 기 >

선어말 어미 ‘-았-/~었-’은 일반적으로 발화시 이전에 일어난 일을 표현할 때 사용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사건이 이미 일어났음을 나타낼 때에 사용할 수 있고, 완료되어 현재까지 지속되거나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나타낼 때도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미래의 사건이나 일을 이미 정하여진 사실인 양 말할 때도 사용될 수 있다.

- ① 물건 값이 많이 올랐다.
- ② 선회는 이미 밥을 먹었다.
- ③ 간밤의 비로 강물이 많이 불었다.
- ④ 동생은 어제 하루 중일 텔레비전을 보았다.
- ⑤ 날이 이렇게 가무니 올해 농사는 다 지었다.

16. <보기>를 통해 ‘훈민정음’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¹⁶⁾

< 보 기 >

a. 바·논 입시·울쏘·리·니·삿·뽕·쫑·처·섬·피·아·나는 소리·ㄹ·ㅌ·니
 굴·바·쓰·면·步·뽕·ㅎ·字·쫑·처·섬·피·아·나는 소리·ㄹ·ㅌ·니·라
 (바·논 입술소리니 ‘삿(뽕)자(字)의 처음 퍼서 나는 소리 같으니
 나란히 쓰면 ‘步(뽕)’ 자(字)의 처음 퍼서 나는 소리 같다.)

b. 一·는·卽·즉·字·쫑·가·운·뒷·소·리·ㄹ·ㅌ·니·라
 (一·는 ‘卽(즉)’자(字)의 가운데 소리 같다.)

c. 乃·냉·終·중·ㅓ·소·리·는·다·시·첫·소·리·를·쓰·는·니·라
 (나중의 소리(중성)는 다시 첫소리를 쓴다.)
 -‘훈민정음 언해’*
 *훈민정음 언해: 훈민정음 해례본의 어체 서문과 예의 부분을 우리말로 옮겨 놓은 책.

- ① a의 ‘입술소리’라는 말로 보아 글자가 만들어질 때 발음 기관을 고려한 글자임을 알 수 있다.
- ② a의 ‘뽕’의 용례를 통해 글자를 나란히 쓰는 병서의 원리를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b의 ‘즉’의 용례에서 자음자와 모음자를 만들 때 기본자를 만들고 획을 더하는 가획의 원리를 확인할 수 있다.
- ④ c에서 ‘소리’의 첫소리에 쓰인 ‘ㅓ’이 ‘첫’의 받침으로도 사용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⑤ a의 ‘처음 퍼서 나는 소리’, b의 ‘가운데 소리’, c의 ‘나중의 소리’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초성, 중성, 종성의 체계를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7~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신기루는 그 자리에 없는 어떤 대상이 마치 있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을 말한다. 그러나 신기루는 환상이나 눈속임이 아니라 원래의 대상이 공기층의 온도 차 때문에 다른 곳에 보이게 되는 현상이다. 찬 공기층은 밀도가 크고 따뜻한 공기층은 밀도가 작다. 이러한 밀도 차이는 빛이 공기를 통과하는 시간을 변화시키는데, 밀도가 클수록 시간이 더 걸리게 된다. 이때 공기층을 지나는 빛은 밀도가 다른 경계 면을 통과하면서 굴절한다. 따라서 신기루는 지표면 공기와 그 위 공기 간의 온도 차가 큰 사막이나 극지방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다.

뜨거운 여름, 사막의 지표면은 쉽게 햇볕을 받아 가열되고, 지표면 공기는 그 위층의 공기에 비해 쉽게 뜨거워진다. 뜨거운 공기는 차가운 공기에 비해 밀도가 작은데, 이러한 밀도 차이에 의해 빛이 굴절하게 된다. 나무 한 그루가 사막 위에 있다고 가정하자. 나무의 윗부분에서 나온 빛의 일부는 직진하여 사람 눈에 곧바로 도달하므로 우리 눈에는 똑바로 선 나무가 보인다. 그러나 그 빛의 일부는 아래로 가다가 밀도가 큰 공기층을 지나며 계속 굴절되어 다시 위로 올라가고, 나무의 아랫부분에서 출발한 빛은 계속 굴절되면서 더 위쪽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두 빛의 위치가 바뀌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나무가 거꾸로 서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를 ‘아래 신기루’라고 한다. 따라서 멀리서 볼 때는 바로 선 나무와 그 밑에 거꾸로 선 나무의 영상이 동시에 보이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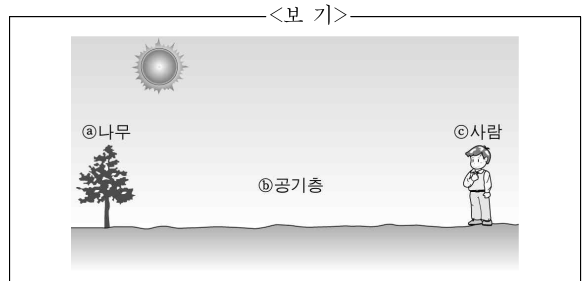
매우 추운 지역에서도 신기루는 일어난다. 극지방의 눈 덮인 지표면 공기는 늘 그 상공의 공기보다 훨씬 차다. 찬 공기층의 밀도는 크고, 따뜻한 공기층의 밀도는 작다. 이러한 밀도 차이에 의해 빛은 밀도가 큰 지표면 쪽으로 굴절되어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된다. 따라서 극지방에 있는 산봉우리는 실제보다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현상을 ㉠ ‘위 신기루’라고 부른다.

신기루가 나타나는 상황은 다양하다. 더운 여름철 오후에는 지표면 온도가 쉽게 높아진다. 이때 가열된 아스팔트 도로 위를 차로 달리면, 전방의 도로 면에 물웅덩이가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 그런데 차가 접근하면 이는 곧 사라지고 얼마쯤 앞에 물웅덩이가 또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지표면과 그 위 공기 간에 온도 차이가 생겨서 하늘에서 오는 빛이 굴절되어 내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 ‘아지랑이’도 신기루의 일종이다. 날씨가 갑자기 따뜻해지는 봄날, 지표면 부근의 가열된 공기는 상승·하강하면서 불규칙적인 밀도 변화를 일으킨다. 이러한 변화는 빛의 굴절 차이를 일으키게 되는데 이로 인해 아지랑이가 발생한다. 이 경우 물체의 위치는 변하지 않고, 아지랑이 때문에 물체가 그 자리에서 어른거리는 것처럼 보인다.

17. 위 글로 미루어 알 수 있는 것은?17)

- ① 신기루는 사막과 극지방에서만 나타난다.
- ② 빛은 밀도가 작은 쪽에서만 굴절하는 속성이 있다.
- ③ 신기루가 나타나려면 그 부근에 대상이 있어야 한다.
- ④ 공기층의 밀도 차이가 없어도 신기루가 생길 수 있다.
- ⑤ 도로에서 굴절 현상이 일어나려면 주변에 물이 있어야 한다.

18.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8)



- ① ㉠은 뜨거운 사막에서 거꾸로도 보인다.
- ② ㉠은 극지방의 산 정상에 있다면 본래 위치보다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 ③ ㉠은 ㉢의 온도가 일정하면 ㉡에게 똑바로 보인다.
- ④ ㉠은 뜨거운 사막의 지표면에 가까워질수록 밀도가 더 커진다.
- ⑤ ㉢의 아랫부분이 윗부분보다 온도가 높으면 빛은 굴절되어 ㉡에게 간다.

19.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19)[3점]

- ① ㉠은 ㉡에 비해 오랫동안 지속된다.
- ② ㉠은 흐린 날에, ㉡은 맑은 날에 보인다.
- ③ ㉠에서는 상공을 향해 빛의 굴절이 일어난다.
- ④ ㉠은 가까이 다가가도 사라지지 않지만, ㉡은 사라진다.
- ⑤ ㉠은 물체가 실제보다 위로 보이고, ㉡은 아래로 보인다.

[20~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현대 산업 체계에서 도량형의 통일된 표준이 없다면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18세기 말부터 국제적인 표준을 만들려는 노력이 꾸준히 이루어졌다.

1791년에 처음으로 프랑스 과학아카데미는 북극에서 파리를 지나 적도까지 이르는 자오선 길이의 1000만분의 1을 ‘1미터’라고 정의하였다. 그러나 자오선 길이는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 정의에 따라 ㉡ 눈금자를 만드는 일은 쉽지 않았다.

그 뒤 1875년에 미터 조약이 만들어졌고 이에 따라서 1889년에 열린 제1차 국제도량형총회(CGPM)는 안정성 높은 백금-이리듐 합금 막대로 제작된 ‘미터 원기(原器)’를 새 표준으로 정의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만들어진 국제 미터 원기는 온도나 압력에 따라 물리적 특성이 변하거나 훼손될 경우, 원래와 똑같이 복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변하지 않는 자연 대상을 바탕으로 언제든지 복원 가능한 표준을 새로 개발할 필요가 있었다.

20세기 과학의 발달로 원자 수준의 현상에 대한 정밀 측정이 가능해졌다. 원자는 내부에 일정한 에너지 준위(準位)들이 형성되어 있다. 이때 원자 안의 전자가 높은 준위에서 낮은 준위로 전이될 때 방출되는 복사선들은 각각 불변하는 고유의 파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1960년 제11차 총회는 크립톤이라는 원자에서 나오는 오렌지색 복사선의 파장을 길이의 표준으로 정의하였다.

“미터는 크립톤-86 원자의 $2p_{10}$ 과 $5d_5$ 준위 간의 전이에 대응하는 복사선의 진공 중 파장의 $1\ 650\ 763.73$ 배와 같은 길이이다(CGPM, 1960).”

(주: 국제표준단위계(SI)는 큰 수를 3자리씩 구분하여 적음)

그러나 이 정의도 크립톤 램프에서 나오는 빛의 세기가 약하므로 실제로 활용하려면 여전히 어려움이 많았다.

1960년대 이후 개발된 레이저 빛은 멀리까지 퍼지지 않고 직진하기 때문에 길이 측정에 유용함이 입증되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빛의 속력은 항상 일정하므로, 레이저를 이용하여 빛의 속력을 길이 표준에 이용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 의견은 1983년 제17차 총회에 반영되어 미터 정의가 현재와 같이 개정되었다.

“미터는 빛이 진공에서 $299\ 792\ 458$ 분의 1초 동안 진행한 경로의 길이이다(CGPM, 1983).”

여기서 빛의 속력이 정확한 값으로 고정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과거에는 속력을 정하려면 이동 거리와 시간을 측정해야만 했다. 그런데 측정은 항상 오차를 가지게 마련이므로 측정으로 표준을 정하면 값을 확정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측정된 빛의 속력은 $299\ 792\ 458(1.2)$ m/s라는 식으로 복잡하게 표현되었는데 여기서 괄호는 측정 불확정도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새로운 정의에서 빛의 속력은 불확정도가 0인 정확한 값으로 규정된다. 그 대신 길이의 정의에 따라 속력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빛의 속력을 기준으로 길이를 정의하게 된 것이다.

[A]

20. 위 글의 내용으로 알 수 있는 것은?²⁰⁾

- ① 표준의 정의는 더 좋은 측정 방법이 발견되더라도 변경하면 안 된다.
- ② 자오선의 길이는 언제든 측정이 가능하므로 복원 가능한 표준이 될 수 있다.
- ③ 원자에서 방출되는 복사선의 파장은 변하지 않으므로 표준이 될 수 있다.
- ④ 1960년의 길이 표준과 1983년의 길이 표준은 빛의 동일한 속성을 이용했다.
- ⑤ 백금-이리듐 합금은 인공물이기 때문에 국제적 표준이 될 수 없다.

21. ㉠의 사례로 보기 어려운 것은?²¹⁾

- ① 휴대폰 충전기가 모델마다 달라서 호환 문제가 발생한다.
- ② 병원의 체온계마다 측정한 온도가 달라서 오진이 우려된다.
- ③ 건전지 전압이 제조 회사마다 달라서 전자 제품이 고장 난다.
- ④ 생산된 부품들의 치수가 공장마다 달라서 자동차가 고장 난다.
- ⑤ 시계의 시각이 은행마다 달라서 사업자 간에 손해 배상 소송이 제기된다.

22. [A]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3집]²²⁾

- ① 속력이 길이의 표준을 결정하게 되었다.
- ② 길이의 측정값은 불확정도가 0이 될 수 없다.
- ③ 빛은 진공에서 1초에 $299\ 792\ 458$ 미터를 진행한다.
- ④ 시간의 표준이 길이의 표준보다 먼저 결정되어야 한다.
- ⑤ 빛의 속력은 오차가 0이 되도록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23. ㉡은 ‘눈금’과 ‘자’가 [형체]와 [형체가 새겨지는 대상]이라는 의미 관계로 결합한 합성어이다. 다음 중 이와 같은 의미 관계를 보이는 것은?²³⁾

- ① 꽃무늬 ② 삼각자 ③ 저울눈
- ④ 그림물감 ⑤ 모눈종이

[28~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정부는 조세를 부과해 재정 사업을 위한 재원을 마련한다. 그런데 조세 정책의 원칙 중 하나가 공평 과세, 즉 조세 부담의 공평한 분배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얼마의 조세를 부과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특정 조세에 대한 납부자를 결정하게 되면 조세법을 통해 납부 의무를 지운다. 그러나 실제로는 납부자의 조세 부담이 타인에게 전가되는 현상이 흔히 발생하는데, 이를 ‘조세전가(租稅轉嫁)’라고 한다.

정부가 불만에 자루당 100원의 물품세를 생산자에게 부과한다고 하자. 세금 부과 전에 자루당 1,500원에 100만 자루가 거래되고 있었다면 생산자는 총 1억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할 것이다. 이로 인해 손실을 입게 될 생산자는 1,500원이라는 가격에 불만을 갖게 되므로 가격을 100원 더 올리려고 한다. 생산자가 불만을 갖게 되면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가격이 한없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가격 상승으로 생산자의 불만이 누그러지지만 반대로 소비자의 불만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결국 시장의 가격 조정 과정을 통해 양측의 상반된 힘이 균형을 이루는 지점에 이르게 되며, 1,500원~1,600원 사이에서 새로운 가격이 형성된다. 즉 생산자는 법적 납부자로서 모든 세금을 납부하겠지만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자루당 실제 부담하는 세금을 그만큼 줄이게 되는 셈이다. 반면에 소비자는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되므로 가격이 상승한 만큼 세금을 부담하는 셈이 된다.

한편, 조세전가가 한 방향으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동일한 세금을 소비자에게 부과한다고 하자. 소비자는 자루당 1,500원을 생산자에게 지불해야 하므로 실제로는 1,600원을 지출해야 한다. 이에 대해 소비자는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 소비자의 불만이 시장에 반영되면 시장의 가격 조정 기능이 작동하여 가격이 하락하게 되며, 최종적으로 소비자는 가격 하락 폭만큼 세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즉 정부가 소비자에게 세금을 부과한다 해도 생산자에게 조세가 전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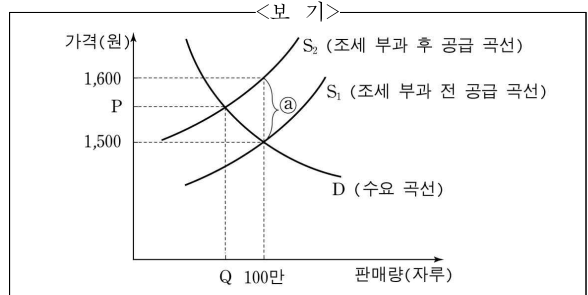
그렇다면 양측의 실제 부담 비중은 어떻게 결정될까? 이는 소비자나 생산자가 제품 가격의 변화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가격 변화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구입량을 크게 바꾸지 못하는 경우, 어느 측에 세금을 부과하든 ㉠ 소비자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생산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때에는 가격 상승 요구가 더욱 강하게 반영되어 새로운 가격은 원래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서 형성될 것이다. 즉 생산자의 세금이 소비자에게 많이 전가된다. 그러나 소비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때에는 가격 하락 요구가 잘 반영되지 않아 가격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 그로 인해 소비자가 대부분의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한편, 가격 변화에도 불구하고 생산자가 생산량을 크게 바꾸지 못하는 경우에는 누구에게 세금이 부과되든 ㉡ 생산자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조세전가 현상으로 인해 정부는 누가 진정한 조세 부담자인지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A]

28. ‘조세전가’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28)

- ① 소비자나 생산자가 제품 가격의 변화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에 따라 조세 부담 비중이 달라진다.
- ② 누구에게 세금이 부과되든 소비자와 생산자가 동시에 조세전가의 혜택을 누린다.
- ③ 조세전가가 발생하면 그에 따라 물품세의 단위당 조세액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 ④ 생산자에게 조세가 부과될 경우 결국 소비자가 세금을 전액 부담하게 된다.
- ⑤ 조세전가가 발생하면 시장의 가격 조정 기능이 상실된다.

29. [A]를 <보기>와 같이 그래프로 그렸다. 이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3점] 29)



- ① 조세 부과 후 소비자는 P를 자루당 가격으로 지불한다.
- ② 조세 부과 후 생산자는 a를 자루당 조세액으로 납부한다.
- ③ 조세를 100원에서 50원으로 줄이면 공급 곡선 S₁이 오른쪽 아래로 이동한다.
- ④ 소비자의 자루당 세금 부담액은 P에서 1,500원을 뺀 것이다.
- ⑤ 조세 부과로 판매량이 100만 자루에서 Q로 줄어들게 된다.

30. ㉠, ㉡에 해당하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30)

- ① ㉠: 바나나 가격이 오르면 곧 오렌지를 구매하는 소비자
- ② ㉠: 커피 가격이 오르면 커피 구입을 쉽게 줄이는 소비자
- ③ ㉠: 상표와 상관없이 가장 저렴한 샴푸를 구매하는 소비자
- ④ ㉡: 사과를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소유한 농장주
- ⑤ ㉡: 유행이 바뀌어 재고를 처분해야 하는 액세서리 생산자

[31~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鶯子初來時 제비 한 마리 처음 날아와
 喃喃語不休 지지배배 ㉠그 소리 그치지 않네
 語意雖未明 말하는 뜻 분명히 알 수 없지만
 似訴無家愁 집 없는 서러움을 호소하는 듯
 榆槐老多穴 느릅나무 왜나무 목어 구멍 많은데
 何不此淹留 어찌하여 그곳에 깃들지 않니
 燕子復喃喃 제비 다시 지지귀며
 似與人語酬 사람에게 말하는 듯
 榆穴鶴來啄 느릅나무 구멍은 황새가 쪼고
 槐穴蛇來搜 왜나무 구멍은 뱀이 와서 뒤진다오
 - 정약용, 「고시(古詩)」 -

(나) 북창(北窓)에 기대 앉아 새벽을 기다리니
 무정한 오디새는 이 내 한을 돕는다
 아침까지 울적하여 ㉡ 먼 들을 바라보니
 즐기는 농가(農歌)도 흥 없이 들린다
 세정(世情)* 모르는 한숨은 그칠 줄을 모른다
 술 고기 있으면 친구도 사귀련만
 두 주먹 비계 쥐고 물정 모르는 말에 모습도 못 고우니
 하루아침 부릴 소도 못 빌려 말았거든
 하물며 교외(郊外)에서 취(醉)할 뜻을 갖을쏘나
 아까운 저 쟁기는 벗보임도 좋을시고
 가시 엉킨 목은 밧도 쉽사리 갈련만은
 ㉢ 텅 빈 집 벽에 쓸 데 없이 걸렸구나
 차라리 첫 봄에 팔아나 버릴 것을
 이제야 팔려 한들 알 이 있어 사러오라
 봄같이도 끝나간다 후리 쳐 던져두자
 강호 한 꿈을 꾸 지도 오래려니
 ㉣ 입과 배가 누가 되어 어즈버 잊었도다
 저 물을 바라보니 푸른 대도 하도할샤
 ㉤ 훌륭한 군자들이야 낚대 하나 빌려스라
 갈대꽃 깊은 곳에 명월청풍 벗이 되어
 ㉥ 입자 없는 풍월강산에 절로절로 늙으리라
 - 박인로, 「누항사」 -

* 세정: 세상 물정.

31. (가)~(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³¹⁾
- ① 현실에 대한 역사적 인식이 담겨 있다.
 - ② 불만족스러운 삶의 현실이 내재되어 있다.
 - ③ 일상생활의 소중함에 대한 자각이 나타나 있다.
 - ④ 현실과의 단절로 인한 안타까움이 드러나 있다.
 - ⑤ 자신의 삶의 태도를 반성하면서 개선하고자 한다.

32.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³²⁾
- ① (가)는 대비적 관계에 있는 시어를 배치하고 있다.
 - ② (나)는 공간의 이동 경로에 따라 사물의 다양한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③ (가)는 (나)와 달리 풍자적 표현을 활용하여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설의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⑤ (나)는 (가)에 비해 화자의 내면이 잘 드러나는 어조를 취하고 있다.

33. <보기>를 참조하여 (나)의 ㉠~㉥을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³³⁾

<보 기>

사대부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했던 삶은 세상에 나아가 태평성대를 구현하는 데 힘을 보태는 것이었으며, 이것을 자신들의 직분이라고 생각했다. 박인로도 이와 같은 삶을 지향했으며 사대부의 직분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럴 만한 지위를 얻지 못했다. 그렇다고 세속적인 삶의 방식을 추종하며 살 수도 없었기에 세상에서 점점 소외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갈등하다가 그가 선택하게 된 또 하나의 가치가 ‘안빈낙도(安貧樂道)’이다. 즉 안빈낙도는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사대부로서의 고결한 내면을 지키기 위해 선택한 삶의 양식이었던 것이다.

- ① ㉠은 화자와 세상과의 심리적 거리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② ㉡은 사대부로서의 직분을 현실에서 실천할 수 없는 화자의 안타까운 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은 화자가 선비로서의 고결한 삶을 살 수 없었던 이유로 볼 수 있겠군.
- ④ ㉣은 권력욕에 빠진 위정자들에 대한 비판을 보여 주는군.
- ⑤ ㉤은 안빈낙도하며 살아가겠다는 화자의 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34~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여승(女僧)은 합장(合掌)하고 절을 했다
 가지취의 내용새가 났다
 쓸쓸한 낮이 넷날같이 늙었다
 나는 불경(佛經)처럼 서러워졌다

평안도(平安道)의 어니 산(山) 깊은 ㉠ 금덥판
 나는 파리한 여인(女人)에게서 옥수수를 샀다
 여인(女人)은 나 어린 딸아이를 따리며 가을밤같이 차게 울
 었다

섬벌같이 나아간 지아비 기다려 십 년(十年)이 갔다
 지아비는 돌아오지 않고
 어린 딸은 도라지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

산(山)뺨도 설게 울은 슬픈 날이 있었다
 ㉡ 산(山)절의 마당귀에 여인(女人)의 머리오리가 눈물
 방울과 같이 떨어진 날이 있었다

- 백석, 「여승(女僧)」 -

(나) 저 지붕 아래 제비집 너무도 작아
 갓 태어난 새끼들만으로 가득 차고
 어미는 둥지를 날개로 덮은 채 간신히 잠들었습니다
 바로 그 옆에 누가 박아 놓았을까요, 못 하나
 그 못이 아니었다면
 아버지는 어디서 밤을 지냈을까요
 못 위에 앉아 밤새 꾸벅거리는 제비를
 눈이 뜨겁도록 올려다봅니다

종암동 ㉢ 버스 정류장, 흙바람은 불어오고
 한 사내가 아이 셋을 데리고 마중 나온 모습
 수많은 버스를 보내고 나서야
 피곤에 지친 한 여자가 내리고, 그 창백함 때문에
 반쪽 난 달빛은 또 얼마나 창백했던가요
 아이들은 달려가 엄마의 옷자락을 잡고
 제자리에 선 채 달빛을 좀 더 바라보던
 사내의, 그 마음을 오늘 밤은 알 것도 같습니다
 실업의 호주머니에서 만져지던
 때 묻은 호두알은 쉽게 깨어지지 않고
 그럴듯한 ㉣ 짚 한 채 짓는 대신
 못 하나 위에서 걷는 것으로 살아온 아버,
 거리에선 아직도 흙바람이 몰려오나 봐요
 돌아오는 길 희미한 달빛은 그런대로
 식구들의 손잡은 그림자를 만들어 주기도 했지만
 그러기엔 ㉤ 골목이 너무 좁았고
 늘 한 걸음 늦게 따라오던 아버지의 그림자
 그 꾸벅거림을 기억나게 하는
 못 하나, 그 위의 잠

- 나희덕, 「못 위의 잠」 -

34. (가)~(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³⁴⁾
- ① 반어적 표현을 구사하여 주제를 부각시킨다.
 - ② 시간의 변화가 시상 전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 ③ 부정적 현실을 포용하려는 여유로운 정신이 엿보인다.
 - ④ 대화체를 사용하여 독자를 시 속으로 깊숙이 끌어들인다.
 - ⑤ 화자와 대상의 거리를 좁혀 자연 친화적 태도를 드러낸다.

35. (가)와 (나)를 비교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³⁵⁾
- ① (가)는 사람이, (나)는 자연물이 시상을 유발한다.
 - ② (가)는 (나)에 비해 내면을 성찰하는 태도가 잘 드러난다.
 - ③ (나)는 (가)에 비해 간접적으로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④ (나)는 (가)에 비해 친근한 어조를 사용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비유적으로 인물을 표현하고 있다.

36.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³⁶⁾[3점]
- ① ㉠: '여인'이 생계를 유지하는 공간
 - ② ㉡: '여인'이 비극적 상황에서 대안으로 선택한 공간
 - ③ ㉢: '사내'가 자신의 처지를 확인하는 공간
 - ④ ㉣: '사내'가 지향하는 삶을 상징하는 공간
 - ⑤ ㉤: '사내'가 정서적 유대감을 느끼게 되는 공간

[37~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재종숙은 아무래도 김만호 씨보다는 강 목사에 더 애착이 가는 것 같았다.

“들은 소학교와 농업학교를 같이 다녔고, 이 지역에서는 그래도 똑똑하다고 소문이 나 있던 사람들이었지. 강 목사는 농업학교를 나온 후 이곳 소학교에서 교편을 잡으면서 밤이면 야학을 하였어. 나도 토요일이나 방학에 집에 와서는 그 일을 도와 드렸지.”

그러는 사이에 강 목사와 김만호 씨는 자주 다투게 되었다. 한쪽에서는 일본 말을 가르치는 일을 못마땅히 생각하였고, 한편에서는 세상 돌아가는 형편을 외면한 채 저 잘난 척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는 동안 결국 한글 강습소는 문을 닫아야 하였고 강 목사는 고향을 떠나야 하였다.

“이봐, 그때 그 한글 강습소를 폐쇄시킨 게 바로 김만호였어. 우리가 주재소에 가서 혼이 나도록 당한 것도 다 뒤에서 그 작자가 조종을 한 거야. 나도 학교를 마치지도 않고 고향에 있을 수가 없어서 일본으로 떠나 버렸어. 귀찮은 일이 자꾸 따라다녔지.”

㉠ 재종숙은 그때 일을 바로 어제 일같이 말하였다.

“그 일뿐이 아니라고. 참으로 못할 짓 많이 하였지. 그런데 내가 해방이 되어서 고향에 돌아와 보니까, 아니 어디 숨어 있는 줄 알았던 그가 아주 요란스럽게 행세를 하고 있었어. 난 그 꼴이 보기 싫어서 다시 일본으로 들어가 버렸지만…….”

재종숙의 말은 자꾸 헛갈렸다.

김만호 씨는 면 농회 근무 3년 만에 서른이 안 된 나이로 면장이 됐다. 재종숙은 아마 그가 제일 악질적인 면장이었을 거라고 말하였다. 더구나 용서하지 못할 일은, 그가 가장 면민을 위하는 척하면서 제 할 일은 다 했다는 점이었다. 그는 젊은 면장으로서 이 제주 섬에서 가장 도사(島司)의 신임을 얻은 면장이 되었다. ㉡ 재종숙의 말투는 점점 과격하여 갔다. 인생의 황혼기에서, 아무리 뼈에 사무친 일이라 하더라도 이 나이쯤이면 모두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을 터인데 그게 아니었다.

“생각해 보게.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 ‘선구적인 시민상’을 주어. 나라를 팔아먹는 데, 권력의 중노릇 하는 데 선구적이었어. 그건 김만호 개인의 문제가 아니여. 신문사 문제만도 아니고, 작은 문제가 아니여. 그 사람이 상을 타면 세상 사람의 본이 되는 건데, 아니 모두들 그렇게 살아도 된다는 거여? 안 되여. 안 돼.”

그는 언성을 높였다. 바로 교장 어른을 상대하여 말하는 투였다.

그와 헤어져 거리로 나오자 이번에는 교장 어른을 만나고 싶었다. 역시 그에게서는 재종숙과는 정반대의 말을 들을 것이 뻔하지만, 재종숙에게 듣지 못했던 새로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자네가 날 찾아올 줄 알았지.”

교장 어른은 몸소 써서 만든 ‘반야심경’ 열 폭 병풍 앞에서

한복 차림으로 앉았다가 일어서면서 나를 반갑게 맞았다. 나는 그분에게서 곱게 늙고 있는 행복한 서민의 모습을 보았다. 육십 평생을 어린이 교육을 위해서만 살다 정년퇴임한 지 몇 해가 되지만, 그는 여전히 이곳 사람들의 선생으로 대접받고 있었다. 방 한편 구석 문갑 위에 있는 한탄 분이 그 어른의 기품과 어울리는 것 같았다. 세배꾼들이 다녀갔는지 방석들이 즐비하니 널려 있었다.

교장 어른은 아까 종갓집에서와는 다르게 나를 대하면서 벌써 찾아간 연유를 알고 있었다. 나는 신문사로부터 부여받은 일을 설명하고 나서,

“할아버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할아버님께서 그분과 오랜 교분을 갖고 계신 걸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그분을 잘 알고 계시겠기에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개인적인 일 같은 것을 듣고 싶습니다.”

㉢ 되도록 조심스럽게 말하였다. 사실 나 자신 한 인간의 사회적 삶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는 뚜렷한 생각도 잡혀 있지 않은 처지라서 우선 이렇게 얼버무릴 수밖에 없었다.

“그분이 일제 시대에 관리 노릇을 하였고 더구나 면장을 오랫동안 지낸 것은 사실이지만, 그 시기에 누군들 면장을 해야 했을 거이고, ㉣ 더구나 일본 사람이 면장을 했던 것 보담야 훨씬 나았지. 나도 일제 시대 여남은 해 동안 교단에 서서 식민지 교육에 앞장섰던 사람으로서 그분의 행적에 대하여 시비를 가릴 자격은 없어. 큰집에서 내가 좀 강경하게 말한 것은 자네 칠촌 말일세. 일본 가서 살아서 이곳 사정을 모르는 처지에 이러쿵저러쿵 하는 바람에 비위가 상했던 거야. 자기도 그곳에서 살았으면 아니, 일본 사람에게 협조하지 않고 독야청청 민족과 나라를 위하여 애국만 하며 살 수 있었겠단 말일네. 어림없어. 아마 먼저 더 철저하게 일본 사람들에게 붙어살았는지 누가 알아. 사실 이곳에서 살지 않았던 사람은 이곳에 살면서 좋은 일 같은 일 모두 겪었던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말을 말아야 돼.”

재종숙의 처사가 못마땅하다는 것이었다. ㉤ 그런 교장 어른에게서도 새로운 김만호의 면모를 찾을 수 없을 것 같았다.

- 현길연, 「신열(身熱)」 -

37.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37)
- ① 대화를 통해 인물의 성격을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② 상징적 소재를 활용하여 주제를 암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③ 사물에 대한 섬세한 묘사로 독자의 상상 공간을 확대하고 있다.
 - ④ 비유적인 언어를 적절하게 구사하여 작품의 미적 효과를 높이고 있다.
 - ⑤ 내적 독백을 연속적으로 서술하여 소설 내의 시간을 느리게 진행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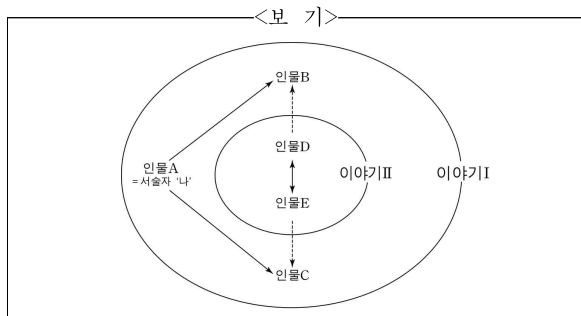
38. 위 글의 내용으로 미루어 알 수 없는 것은?³⁸⁾

- ① ‘김만호’는 현실의 변화를 재빨리 수용한다.
- ② ‘김만호’와 ‘강 목사’는 삶의 태도와 관점이 매우 다르다.
- ③ ‘교장 어른’은 ‘강 목사’보다는 ‘김만호’의 입장에 서 있다.
- ④ ‘나’는 ‘재종숙’과 ‘교장 어른’이 화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⑤ ‘재종숙’은 ‘김만호’의 수상 문제가 사회 정의와 관련되어 있다고 본다.

39.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³⁹⁾

- ① ㉠: 과거의 일을 아직도 마음에 두고 있다.
- ② ㉡: 분노의 감정에 휩싸여 흥분하고 있다.
- ③ ㉢: 관련된 사안이 예민한 문제라고 느끼고 있다.
- ④ ㉣: 상황을 들어 당시 행위를 옹호하려 한다.
- ⑤ ㉤: 예상 밖의 결과가 나오자 실망하고 있다.

40. 위 글의 이야기 구성을 <보기>와 같이 정리한다고 할 때, 이와 관련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3점]⁴⁰⁾



- ① 이야기 I 과 이야기 II의 공간적 배경을 다르게 설정하여 작품의 입체성을 강화하고 있다.
- ② 이야기 I 과 이야기 II의 시간적 배경을 동일하게 설정하여 보편적 공감을 유도해 내고 있다.
- ③ 이야기 I의 특정 인물과 이야기 II의 특정 인물만 서로 갈등 관계를 맺도록 하여 단일화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 ④ 인물 A가 인물 B와 C의 입을 통해서만 인물 D와 E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독특한 구성 방식 때문에 이야기 II의 비중이 약화된다.
- ⑤ 인물 A가 이야기 II 속의 인물 D와 E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작품의 핵심적 의미는 인물 D와 E의 실상 규명과 관련되어 있다.

(42~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세월이 물같이 흘러 응의 나이 15세라. 골격이 웅장하고 기운이 뛰어난더라. 하루는 응이 모친께 청했다.

“소자 지금 나이 15세요, 이곳이 선경(仙境)인지라 가히 살만한 곳이지만, 대장부 세상에 처하매 한곳에서 늙을 것이 아니옵니다. 신선도 두루 돌아다니 박람(博覽)한다 하거늘 소자가 슬하를 잠시 떠나 산 밖에 나가 세상을 구경하고 황성 소식도 듣고자 하나이다.”

왕 부인이 매우 놀라며 말했다.

“천리 타향에 너는 나만 믿고 나는 너만 믿어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거늘 네 일시인들 내 슬하를 떠나며, 내 어찌 너를 내어 보내고 일시인들 잊을꼬냐. 네 어디를 갈 양이면 한가지로 할 것이라. 차후는 그런 마음 두지 말라. 매우 놀랍도다.”

응이 다시 아뢰지 못하여 물러 나와 월경 대사와 의논했다.

“내 이제 세상에 나가도 남에게 화를 입지 않을 것이옵니다. 또한 내 몸이 중이 아니라 오래 산 속에 있사오니 황성 소식도 모르고 나의 심중에 품은 일도 아득하와, 일전에 모친께 사정을 고하오니 도리어 꾸중하시는 바람에 다시 거역하지 못하였삽거니와, 대사께서는 저를 위하여 모친의 마음을 돌려 저의 뜻을 펴게 함이 어떠하오리까?”

대사가 말했다.

“공자의 말은 반반한 장부의 말이로다.”

하고 부인 앞에 가서 고금의 일을 이야기하다가 공자의 품은 큰 뜻을 여쭙니 부인이 말했다.

“말은 당연하나 만리타국에 보내고 어찌 이 적막강산 사고 무친한 곳에서 잠시라도 잊을 수 있으며 또한 저의 나이 어리고 세상사에 어리석은지라, 어지러운 세상에 나가 어찌 될 줄 알리오.”

“부인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공자를 어리다 하시거니와, 천병만마에 시석(矢石)이 비 오듯 하여 살기(殺氣)가 충천한 곳에 넣어도 조금도 걱정할 바가 없을 것이니 부인은 어찌 사람의 운명을 의심하십니까? 홍문연 살기 중에 패공이 살아나고, 파강산 천경사의 부인이 살아났으니 어찌 천명을 근심하리오. 소승 또한 공자의 환란을 짐작하지 못하오면 어찌 출세함을 권하며, 공자 세상에 나가도 부인은 이곳에 계시오면 무슨 근심이 있으리까?”

이렇게 설득하니 부인이 한동안 생각하다가 말했다.

㉠ “만일 존사의 말씀과 같지 못하면 어찌하리오?”

“공자의 평생 영욕(榮辱)을 다 알았사오니 조금도 염려 마옵소서.”

부인이 마지못해 허락하니 대사와 응이 기뻐 이튿날 길을 떠났다.

(중략)

“십 년을 정성 들여 선생을 찾아왔는데 뵈지 못하오니, 바라옵건대 동자는 가신 곳을 가르쳐 주소서.”

동자가 웃으며 말했다.

“나무꾼이 기러기를 쏘아 맞히지 못하매 제 공부 부족함을

깨닫지 못하고 활과 살을 꺾어 버리니 그대도 나무꾼과 같도다. 그대 정성이 부족한 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주인이 없음을 원망하니 매우 우습도다. 다만 선생께서는 이 산중에 계시건만 산세가 워낙 험하니 그 종적을 어찌 알리오?”

다시 만나질을 기다렸으나 종적이 표면한지라. 울적한 마음을 이기지 못해 붓을 잡아, 못 보고 가는 뜻을 글로 쓰고 동자를 불러 하직하고 나오니 마음을 헤아리지 못할러라.

이때 철관 도사가 산중에 그옥이 앉아 응의 거동을 보더니 벽에 글을 쓰고 가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겨 급히 내려와 벽의 글을 보니 다음과 같았다.

[A] 십 년을 지내 온 나그네가
만 리 밖에서 찾아오도다.
못에서 용이 날아오르려 하거늘
이 또한 정성이 모자람이다.

도사가 보기를 다하고 크게 놀라 급히 동자를 산 밖에 보내 응을 청하니 응이 동자를 보고 물었다.

“선생이 왔더니까?”

“이제야 오셔서 청하시나이다.”

응이 반겨 동자를 따라 들어가니 도사가 사립문에 나와 응의 손을 잡고 기뻐하며 말했다.

“험한 산길에 여러 번 고생하였도다.”

하고 동자를 시켜 저녁밥을 재촉하여 주거늘 응이 먹은 후 감사하며 말했다.

“여러 날 굶주린 배에 좋은 밥을 많이 먹으니 향기가 뱃속에 가득한지라 감사하여이다.”

“그대의 먹는 양을 어찌 알아 권하였으리오?”

하고 책 두 권을 주며,

“이 글을 보아라.”

하거늘, 응이 무릎을 꿇고 펼쳐 보니 성현(聖賢)들이 쓴 책이다. 응이 다 본 후에 다른 책을 청하니, 도사가 웃고 『육도삼략』을 주거늘 받아 큰 소리로 읽었다. 도사가 더욱 기뻐하게 여겨 『천문도』 한 권을 주거늘 받아 보니 기묘한 법이 많은 지라. 도사가 가르치는 술법을 배우니 뜻이 넓어지고 눈앞의 일을 모를 것이 없더라.

- 작자 미상, 「조웅전」 -

* 박람: 사물을 널리 봄.

* 시석: 전쟁에 쓰던 화살과 돌.

41. 위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41)

- ① 내적 독백을 통해 극적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 ② 묘사의 방식을 통해 장면이 전환되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구체적인 시대적 배경이 드러나고 있다.
- ④ 권위 있는 인물의 설득을 통해 인물 간의 갈등이 해소되고 있다.
- ⑤ 서술자가 개입하여 인물의 과거의 사건을 압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42. 위 글의 등장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42)

- ① 철관 도사는 조웅의 자질을 의심하고 있다.
- ② 왕 부인은 조웅의 입신양명을 희망하고 있다.
- ③ 동자는 조웅의 판단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 ④ 월경 대사는 조웅의 장래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
- ⑤ 조웅은 어머니의 입장보다 자신의 포부를 앞세우고 있다.

43. [A]의 서사적 기능을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43)

<보 기>

ㄱ. 주인공의 예언 능력을 보여 준다.
ㄴ. 주인공의 심리적 정황을 제시한다.
ㄷ. 주인공의 위기를 예고하는 복선이 된다.
ㄹ. 주인공의 고민을 해소하는 계기가 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44. <보기>를 바탕으로 위 글을 이해할 때,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44)[3점]

<보 기>

소대성 : 나는 「소대성전」의 주인공이야. 외세의 침입으로부터 나라를 구해 영웅이 되었지. 그런데 내가 영웅이 된 과정은 나와 다르더군.

조 웅 :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간신의 박해를 받아 고생을 했고, 그 간신이 일으킨 반란을 평정해서 영웅이 되었지. 태어나면서 부귀영화를 누리기가까지 줄곧 적과 싸움을 한 셈이야.

소대성 : 나도 부모를 잃어 고생한 적은 있었어. 하지만 선천적으로 무예와 도술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수련의 과정이 필요 없었어.

조 웅 : 그렇구나. 나는 너와 달리 스승을 찾아야 했고, 참으로 긴 수련의 과정이 필요했어.

소대성 : 그래서 너의 이야기에는 나의 이야기와 다른 ㉠ 특징이 있구나.

- ① 등장인물의 수를 늘려 설정된 사건을 보다 다양한 시각에서 조망할 수 있게 한다.
- ② 주인공의 영웅성과 함께 대사나 도사의 신비한 능력을 부각시켜 환상적 분위기를 연출한다.
- ③ 스승의 존재를 부각시킴과 동시에 공부에 대한 강한 신념

을 드러내어 소설의 교훈성을 부각시킨다.

- ④ 주인공의 시련을 좀 더 단계적으로 설정하여 사건의 전개 속도를 빠르게 하는 한편 주제를 심화시킨다.
- ⑤ 선천적으로 초월적 힘이 주어진 경우보다 고난 극복에 대한 주인공의 현실적이고 강인한 의지를 부각시킨다.

45. 문맥으로 보아 ㉠에 대한 독자의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45)

- ① 왕 부인은 '선견지명(先見之明)'이 있군.
- ② 왕 부인은 '노심초사(勞心焦思)'하고 있군.
- ③ 왕 부인은 '식자우환(識字憂患)'에 해당하는군.
- ④ 왕 부인은 '시시비비(是是非非)'를 가리고 있군.
- ⑤ 왕 부인은 '적반하장(賊反荷杖)'의 말을 하고 있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1) 5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확인: 기회 제공
은표는 슬기가 자신의 질문에 대해 당황하자 '괜찮으니 당황하지 말고 말씀해 보세요.'라고 말하고 있지만, 정확한 답변을 할 때까지 여러 번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인 이유

- ① 확인: 면접 방식
'지원자가 많아 두 명이 한 조를 이루어 면접이 진행된다는 것을 미리 알려 드렸지요?'에서 알 수 있다.
② 확인: 면접 질문
'우선 우리 동아리에 지원한 동기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동아리의 구성원이 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활동하고 싶은지 말씀해 주세요.'에서 알 수 있다.
③ 확인: 추가 질문
'도래 상담 동아리에서 활동하던 친구에게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에서 알 수 있다.
④ 확인: 격려
'(웃으며) 괜찮으니 당황하지 말고 말씀해 보세요.'에서 알 수 있다.

2) 4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확인: 개방형 질문
[B]에서 은표는 '민성 님은 어떤 활동을 하고 싶으세요?'라고 하며 다양한 내용과 형식으로 답변이 가능한 개방형 질문을 던지고 있다.

오답인 이유

- ① 확인: 여러 가지 종류의 질문
한 가지의 질문을 던지고 있다.
② 확인: 답변을 회피
슬기는 은표의 질문에 대해 정확하게 답변하고 있다.
③ 확인: 근거 요구
객관적인 근거를 요구하고 있지 않다.
⑤ 확인: 질문의 의도 파악
민성은 은표의 질문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고 적절하게 답변하고 있다.

3) 5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확인: 장황한 답변
은표의 질문에 대해 슬기는 '친구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지는 못하겠지만 동등한 입장에서 고민을 들어 주는 따뜻한 상담자로 활동하고 싶습니다. 상담한 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는 것은 기본이겠지요.'라고 하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밝히고 있다. 그러나 장황한 답변을 늘어놓아 민성이 대답하지 못하게 한 것은 아니다.

오답인 이유

- ① 확인: 면접 태도
'(당황한 표정으로 들고 있던 수첩을 넘겨 보면서) 그제 ..., 저 ...'에서 알 수 있다.
② 확인: 충실한 답변
'선배들로부터 '우리 사이'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했는데, 우리 동아리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에는 어떤 것이 더 있는지요?'라는 질문에 답변하지 못한 것에서 알 수 있다.
③ 확인: 질문 내용 이해
'네, 저는 고민이 있을 때 선생님이나 부모님보다는 친구들과 상담하는 편입니다. 친구들이 성적, 이성 관계 등 저와 비슷한 고민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저도 또래 상담 동아리 친구에게 받았던 것 같은 도움을 주는 상담자가 되고 싶어요.'에서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설명하고 있지 않다.
④ 확인: 다른 지원자에 대한 태도
'(슬기의 대답이 끝나기도 전에) 만들어진 지 10년이나 된 역사 깊은 동아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상담한 내용을 모아 분기별로 책자를 내고 있다는 것도 들었습니다.'에서 알 수 있다.

4) 3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확인: 평가가 옳은지 확인
지우가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는 아이들이 많이 떠드는 것 같아.'라고 하자, 이를 받아 윤서가 '하긴, 우리 반 아이들이 자습 시간에 떠들긴 하지.'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지우의 말에 대한 자신의 평가가 옳은지를 확인하기 위한 발언이 아니라 지우가 한 말을 일부 반복하여 동조의 뜻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오답인 이유

- ① 확인: 비언어적 표현
표정이라는 비언어적 표현을 통해 상대방에게 무슨 일이 있다고 짐작하고 있다.
② 확인: 대화 참여자 간의 친밀한 관계

상대방과 친하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④ 확인: 공감을 표현
질난 척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이에 대해 공감을 표현하고 있다.
⑤ 확인: 매체의 적절한 활용
직접 표현하기 어려운 것도 학급 홈페이지라는 온라인 매체를 이용하면 쉽게 표현할 수 있다고 했다.

5) 5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확인: 성적 향상이라는 공동의 목표
성적 향상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점심시간에 시간을 아껴 가며 자습을 한다는 점을 제시하라고 하여 청중과 공유하는 점을 밝히라고 제안하고 있다.

오답인 이유

- ① 확인: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
자신이 자습 시간에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를 밝히는 것은 말하는 사람의 상황만 드러낸 것이다.
② 확인: 집중하는 정도와 성적이 향상되는 정도
자습 시간의 집중도와 성적 향상과의 비례에 대한 발언이 청중과 공유하는 점을 드러낸 것이라 보기 어렵다.
③ 확인: 자습 시간에 집중하지 못한 친구들이 많다
시끄러워서 자습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다는 발언은 현재의 상황을 제시한 것으로, 시끄럽게 떠들고 있는 청중과 공유하는 점을 드러낸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④ 확인: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을 감정에 호소
자신이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을 감정에 호소하는 발언 자체가 청중과 공유하는 점을 드러낸 것이라 보기 어렵다.

6) 4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확인: 상위 항목과의 어울림
'에너지 생산의 비용이 적게 들.'은 '석탄 화력 발전과 관련한 문제점 해결 방안'이라는 상위 항목과 어울리지 않는다. 또한 'II-1'의 '석탄 화력 발전과 관련한 문제점'이라는 하위 항목으로도 어울리지 않으므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답인 이유

- ① 확인: 하위 항목 포괄
'석탄 화력 발전의 전력 생산 비중'과 '석탄 화력 발전 시설의 수와 설치된 지역'은 '석탄 화력 발전의 전력 생산 실태'라는 상위 항목으로 무기에 적절하다.
② 확인: 유사한 내용 통합
'이산화탄소를 과도하게 발생시켜 공기가 오염됨.'은 대기 오염에 해당하므로 ㉠과 통합하는 것이 적절하다.
③ 확인: 해결 방안 제시
'관련 시설에 대해 주민들이 부정적으로 인식함.'이 석탄 화력 발전과 관련한 문제점으로 제시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
⑤ 확인: 결론 내용의 적합성
본문에서 주로 석탄 화력 발전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으므로 현재의 결론을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7) 3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확인: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이유
'(가)-2'와 '(나)를 활용하여 'II. 본문'에서 주민들이 석탄 화력 발전소의 장점에 불구하고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이유가 이산화탄소와 관련된 것임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가)-1'과 '(나)만으로는 이끌어 내기 어렵다.

오답인 이유

- ① 확인: 전력 생산 비중
'(가)-1'에서 우리나라 전력 생산 비중에서 석탄 화력 발전이 높음을 알 수 있다.
② 확인: 이산화탄소 처리
석탄을 활용한 발전원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높으므로 이를 처리할 필요성이 있음을 주장할 수 있다.
④ 확인: CCS의 역할
외국의 경우도 CCS가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해 설치를 늘리고 있으므로 이와 같이 판단할 수 있다.
⑤ 확인: CCS 관련 연구
외국의 경우 연구 센터를 설립해 개발에 매진하고 있으므로 연구의 필요성을 촉구할 수 있다.

8) 4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확인: 통계 자료
소음 문제와 관련하여 소음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만 서술하고 있을 뿐 통계 자료 등 구체적인 자료를 함께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정답이 오답인 이유

① 확인: 건의문을 작성하는 사람, 정중한 태도
'저는 교지 편집부의 회장 김은미입니다.'라고 건의문을 작성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밝혔고, 정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② 확인: 건의할 내용
'다름이 아니고 동아리 방의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메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에서 건의할 내용을 밝히고 있다.

③ 확인: 대안 제시
'교지 편집부는 화·목요일, 밴드부는 월·수·금요일에 모임을 한다면'에서 문제 해결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⑤ 확인: 문제 해결의 효과
'밴드부에서도 마음놓고 큰 소리로 음악을 연주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 동아리도 회의를 원활히 개최할 수 있을 것입니다.'에서 효과를 언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9) 5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확인: 친숙한 대상, 역경을 극복한 사람들, 자신의 인식 변화를 제시한 후에 다짐으로 마무리
안데르센 동화라는 친숙한 대상을 제시하면서 글을 시작했고(ㄱ), '다윈, 실러, 헨델, 모차르트, 슈베르트' 등 역경을 극복한 사람들을 제시하여 글에 신뢰감을 주었다(ㄴ). 또한 '그리고 보면 역경이란 받아들이기 때 따라서는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닌 것 같다. 나도 내가 처한 역경을 한탄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성공의 원동력으로 삼아야겠다.'라고 하여 역경에 대한 글쓴이의 인식 변화를 제시한 후에 다짐으로 마무리했다(ㄹ).

정답이 오답인 이유

ㄴ. 확인: 정의의 방식을 사용
역경에 대한 개념을 정의의 방식으로 제시한 부분을 찾을 수 없다.

10) 1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확인: 문장 성분의 호응
'읽어 보았다'를 '읽었다'로 고쳐도 '한번쯤은'과 호응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읽어 보았을 것이다' 정도로 수정해야 한다.

정답이 오답인 이유

② 확인: 문단을 자연스럽게 연결
2문단은 1문단의 내용과 상반되고 있다. 따라서 '그리고'보다는 '그러나' 정도가 적절하다.

③ 확인: 단어의 사용
'굴절'은 '생각이나 말 따위가 어떤 것에 영향을 받아 본래의 모습과 달라짐.'이라는 의미로 문맥에 맞지 않으므로, '이리저리 굽어 꺾여 있음.'을 의미하는 '굴곡'이 적절하다.

④ 확인: 글의 흐름과 어긋나는 문장
안데르센이 주옥같은 동화를 쓸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한 질문은, 163면에 이르는 많은 동화책을 썼다는 사실과 어울리지 않고, '그러자 안데르센은 ~ 대답했다.'의 내용과 어울린다.

⑤ 확인: 어문 규정
'-든'은 '나열된 동작이나 상태, 대상을 중에서 어느 것이든 선택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이므로, '앞말이 관형어 구실을 하게 하고 어떤 일이 과거에 완료되지 않고 중단되었다는 미완(未完)의 의미를 나타내는 어미'인 '-던'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11) 3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확인: 높이는 대상이 불명확
ㄴ은 '웃'을 높이고 있어 잘못된 높임 표현의 예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높이는 대상이 무엇인지 명확히 드러내지 않은 것이 아니라, (보기 1)에서 알 수 있듯이 사람을 높여야 하는데 사물을 높인 경우라 할 수 있다.

정답이 오답인 이유

① 확인: 자신을 높임
'저는 ~ 노력 중입니다.'라고 하며 자신을 높이고 있다.

② 확인: 사물을 높임
'주문한 음식 나오셨습니다.'라고 하며 사물인 음식을 높이고 있다.

④ 확인: 잘못된 호칭어 사용
'이모'는 친족 간에 쓰는 호칭어로, 자신보다 어린 종업원을 부르는 호칭어로 적절하지 않다.

⑤ 확인: 종결 어미를 잘못 결합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와 어떤 행동을 할 것을 약속하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인 '-르게'가 잘못 결합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르게'는 타인의 행동에 대해 쓰면 어색하다.

12) 4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확인: 서술어와의 호응 문제
d는 '좋아하다'의 주체가 '그'와 '어떤 사람' 모두가 되어 종의성을 갖게 된 문장이다. '좋아하다'의 주체가 '어떤 사람'이 되도록 고치려면 '어떤 사람이든지 그를 좋아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정답이 오답인 이유

① 확인: 서술어와의 호응 문제
a는 '나'도 '영희'를 보고 싶어 한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② 확인: 서술어와의 호응 문제
b는 '나'가 '이모'와 '이모부'를 동시에 만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③ 확인: 수량사 사용의 문제
c는 연필 한 개와 지우개 두 개를 주었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⑤ 확인: 수식어, 피수식어의 관계
e는 '그녀'가 아름다운지, '그녀의 동생'이 아름다운지 명확하지 않다.

④ 확인: 서술어와의 호응 문제
d는 '좋아하다'의 주체가 '그'와 '어떤 사람' 모두가 되어 종의성을 갖게 된 문장이다. '좋아하다'의 주체가 '어떤 사람'이 되도록 고치려면 '어떤 사람이든지 그를 좋아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정답이 오답인 이유

① 확인: 서술어와의 호응 문제
a는 '나'도 '영희'를 보고 싶어 한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② 확인: 서술어와의 호응 문제
b는 '나'가 '이모'와 '이모부'를 동시에 만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③ 확인: 수량사 사용의 문제
c는 연필 한 개와 지우개 두 개를 주었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⑤ 확인: 수식어, 피수식어의 관계
e는 '그녀'가 아름다운지, '그녀의 동생'이 아름다운지 명확하지 않다.

13) 4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확인: '물나리'는 [물날리]로 발음
제20항을 통해 [물날리]로 발음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정답이 오답인 이유

① 확인: '않는'은 [안는]으로 발음
제12항의 3. [붙임]을 통해 알 수 있다.

② 확인: '놓는'은 [놓른]으로 발음
제12항의 3. [붙임]과 제20항을 통해 알 수 있다.

③ 확인: '할네'는 [할레]로 발음
제20항의 [붙임]을 통해 알 수 있다.

⑤ 확인: '천리'는 [철리]로 발음
제20항을 통해 알 수 있다.

14) 4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확인: 듣는 이, 주체, 객체
㉠에서는 '있대요'라고 하여 듣는 이인 '아버지'가, ㉡에서는 '주시었다'라고 하여 용돈을 주는 주체인 '할머니'가, ㉢에서는 '어쭈어'라고 하여 객체인 '선생님'이 각각 높임을 받고 있다.

15) 5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확인: 올해 농사는 다 지었다.
날이 가을여서 올해 농사는 이미 망쳤다는 의미이므로 미래의 사건이나 일을 이미 정해진 사실인 양 사용하고 있다.

정답이 오답인 이유

① 확인: 값이 많이 올랐다.
완료되어 현재까지 지속되거나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② 확인: 이미 밥을 먹었다.
사건이나 행위가 이미 일어났음을 나타내고 있다.

③ 확인: 강물이 많이 불었다.
이야기하는 시점에서 볼 때 완료되어 현재까지 지속되거나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④ 확인: 어제 하루 종일 텔레비전을 보았다.
사건이나 행위가 이미 일어났음을 나타내고 있다.

16) 3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확인: 가획의 원리
(보기)에 제시된 자료를 통해 가획의 원리를 적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정답이 오답인 이유

① 확인: 발음 기관을 고려
'입술소리'라는 말로 보아 입술 등과 같은 발음 기관을 고려한 글자임을 알 수 있다.

② 확인: 병서
a의 '뽕'의 용례를 통해 해당되는 글자를 나란히 쓸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확인: 초성, 중성
초성에 쓴 말을 중성에 다시 활용했음을 알 수 있다.

⑤ 확인: 초성, 중성, 종성
a의 '처음 퍼서 나는 소리', b의 '가운데 소리', c의 '나중의 소리'는 각각 초성, 중성, 종성을 의미한다.

17) 3

18) 4

19) 1

- 20) 3
- 21) 1
- 22) 5
- 23) 5
- 24) 3
- 25) 1
- 26) 3
- 27) 4
- 28) 1
- 29) 3
- 30) 5
- 31) 2
- 32) 2
- 33) 4
- 34) 2
- 35) 2
- 36) 5
- 37) 1
- 38) 4
- 39) 5
- 40) 5
- 41) 4
- 42) 5
- 43) 4
- 44) 5
- 45) 2